

요란한 메가시티·행정통합 정권교체 되자 물건너갔다

지역균형발전·소멸 막기 전략
새 정부 수도권 위주 정책 회귀
연구·논의에 행·재정 낭비만
지자체들, 지역 연대보다
중앙과 연계로 각자도생 모색

민선 7기 막바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잇따라 내놓으면서 핫 이슈로 부상한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 초광역 지역발전전략이 2년여 만에 사실상 논의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정권이 교체되고 민선 8기 단체장까지 바뀌면서 이들 주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이들 전략들이 산발적이고, 각 지역의 이기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어 지속성과 파괴력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재, 재정, 자본 등 기득권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 연대와 이를 통한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과밀, 중앙집권 시스템 등의 혁신 없는 지역 발전 전략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광주전남연구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2021년 11월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에 착수해 최근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1년여 간 시도민·전문가 의견조사, 시도민 의식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지만, 상생협력-경제 통합-시도민 공감대 마련·정부 제도적 지원 전체 행정통합 등 3단계 방안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내놓는데 그쳤다. 민선 7기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 등 사·도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먼저 제안했지만, 단체장이 바뀐 민선 8기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도시연합형 특별지자체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전남은 이러한 대도시 중심의 행정통합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 입

장을 분명히 해왔었다. 사·도가 2억 원씩 부담해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광주와 전남의 속내가 완전히 달라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원은 이 용역 이외에 지난 2021년부터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경제공동체 등의 주제로 5-6건의 과제를 수행해왔다.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부·울·경, 대구·경북 등도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의 전략을 폐기했다. 부·울·경은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등 통합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충청권만이 지난 5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정부 지원을 선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수도권과 버금가게 설치하겠다는 메가시티 전략을 담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전략으로 부상했지만, 충청권을 제외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것은 수도권에 대한 명확한 규제 대책 시행, 재정·인사·조직·법률 등에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등과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 수도권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산발적·이기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그 원인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형성, 행정통합도시 조성, 초광역 협력사업 시행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모두 수도권 입장에서의 시혜적인 제도로, 각 지역이 연대를 통해 혁신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인 세종시 조성으로 인해 수도권에 충청권까지 흡수하는 등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는 "아무리 균형발전정책을 내놔도 지금까지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심해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인구가 곧 지역 경쟁력이기 때문에 여·야가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만 관심을 보이고 예산과 사업을 밀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체 인양 작업 6일 오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전복된 '정보호'의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보호' 실종 선원 5명 선내서 발견

선체 임자도 근처 이동 인양 고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정보호'에서 실종된 선원 9명에 대한 수색작업 사흘째인 6일 오후 7시 기준 총 5명의 선원이 수습됐다. <관련기사 6면> 수습된 5명의 선원은 모두 선체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였다.

목포해경은 전복된 정보호의 인양 준비 작업과 동시에 진행된 실내 수색작업에서 기관장인 A(64)씨에 이어 모두 5명의 선원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기관장 A씨는 6일 새벽 3시30분께 기관실로 통하는 선원 침실 입구에서 민간잠수사에 의해 발견

됐고, 이후 한국인으로 확인된 B(57)씨와 C(55)씨 등 2명이 낮 12시에 선미쪽 침실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20분께 기관실에서 D(53)씨가 발견된데 이어 오후 5시 50분께 선체에서 추가로 한명의 선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선원의 신원은 확인 중이다.

실종된 선원들이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해경은 실종자 대다수가 실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사고지점에서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들이 정보호 인양에 동의함에 따라 빠른 인양을 통해 실종자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보호 인양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조기에 몰살마저 거세 잠수 수색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조류가 세지고 있어 사고지점에서의 인양보다 임자도 근처로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인양준비를 마치는 대로 바다의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조류가 거세 현장 인양이 힘들면 임자도 남쪽 인근 잔잔한 바다로 옮긴 뒤 선체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야간에도 인양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인양할 계획이다. 선체가 인양되면 목포시 북항동 북항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두 곳 중 한 곳으로 옮겨 선내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습된 선원들은 목포지역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한 후 각자의 고향 등 빈소로 옮겨 장례를 치를 전망이다. /신안=민현기 기자 hyunki@

튀르키예 규모 7.8 지진...수천 명 사상

국경 맞댄 시리아도 큰 피해

6일(현지시간)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튀르키예-시리아 양국에서 최소 900여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지진

의 진앙은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이다. 진원의 깊이는 17.9km로 분석된다.

진앙은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점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푸아트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에 따르면 튀

르키예에서만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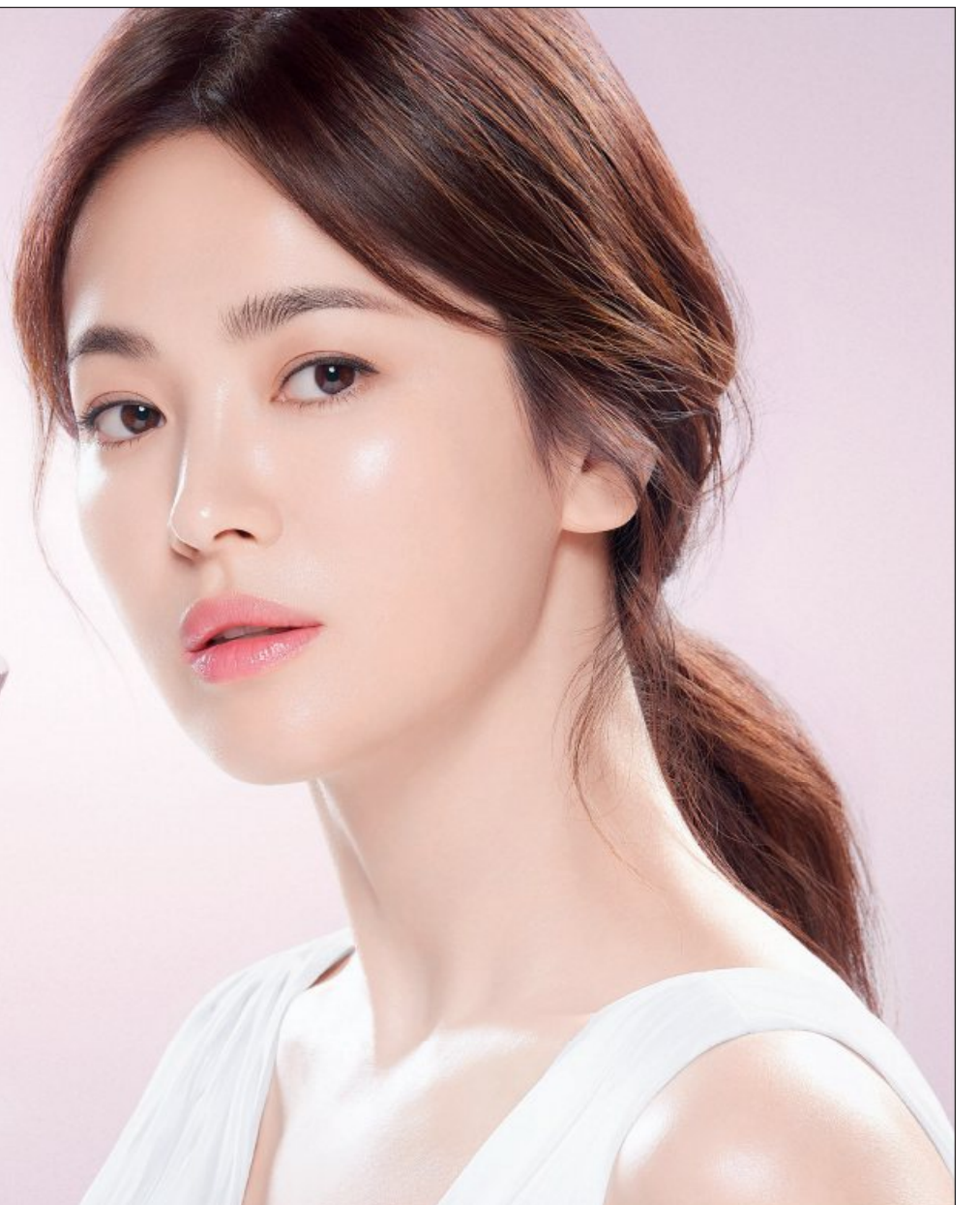
주별로는 카흐라만마라슈 70명, 오스마니예 20명, 샨르우르파 18명, 디야르바크르 14명, 아드야만 13명, 하타이 4명 등이다.

튀르키예 전역의 부상자 수도 2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만 40여 차례에 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규모가 6.6에 이르는 여진도 있었다. /연합뉴스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전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의대 중도탈락, 전남대·조선대 전국 1·2위 ▶7면

굿모닝 예방-도서관 문화를 품다 ▶18·19면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22면